

報 道 資 料

동 자료는 3월 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의 독립 외국환중개회사 인가

주요 내용

- 금융결제원(비영리법인)은 현재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금중개실을 독립 외국환중개회사로 분리·설립하기 위해
 -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정부에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신청할 예정임

- 정부는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외환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
 - 신설회사에 대하여 외국환중개회사 인가를 허용할 방침임

 - ※ 신설법인 업무개시 예정일 : 상반기중

 - ※ 동 법인은 원화중개업무 인가(금감위 소관)도 신청할 계획임

- 동 조치는 금년중 추진하는 외환시장 하부구조 선진화방안의 일환이며
 -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영리목적 외국환 중개기관이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되어 원활한 외환거래중개와 헤지 기회 제공으로 외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報道資料生産課 : 外貨資金課

Tel : 500-5373

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

1. 外換仲介市場 現況

- 금융결제원(자금중개실)이 독점적으로 외국환중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99. 2월부터는 한국자금중개(주)도 영업
- 초기에는 금융결제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으나 현재는 양사가 비슷한 수준
 - 그러나 스왑거래에 있어서는 원화중개업무를 독점수행하는 한국자금중개가 우위

2. 改編方向

- 신설법안에 대해 외국환중개업무를 허용(재정부 인가 예정)
 - 비영리법인인 결제원내 수익사업부문에서 독립영리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어 보다 상업적 베이스에서 영업 가능 전망
- 법인 설립후 원화자금중개업무 인가 신청예정(금감위소관)
 - ※ 외국의 경우 중개회사는 통상 ①외화 ②원화 ③채권중개업무를 동시에 영위
 - ※ 원화결제거래 중개시장 규모 : 16.5조 (일평균 거래량)
 - 외국환거래 중개시장 규모 : 2.6조 (23억불, 일평균 거래량)
- 선진 중개기법 도입을 위해 기존 외환중개회사와 외국 외환중개회사간에 합작·업무 제휴 등도 업계자율로 추진

< 金融決濟院의 推進計劃(案) >

- 설립형태 : 금융결제원이 출자하는 자회사
- 출자금 : 100억원(계획)
 - 금융결제원의 수익사업회계 또는 가용 기본재산중에서 충당
- 향후 일정 : 상반기중 설립절차 마무리 및 영업개시
 - 사원총회(3월중순) → 회사설립(4월중) → 중개업무 인가 및 업무개시(6월중)